

두 문화의 만남: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城)』을 통해 본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충돌

송태현(백석대 기독교학부 교수)

논문초록

한국 사회가 외래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여 정착시키고자 할 때 진정한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황순원은 장편소설 『움직이는 성(城)』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성찰하며 작가 나름대로 이에 대답하고 있다. 불교가 샤머니즘과 교섭하는 가운데 샤머니즘화하였듯이, 이 땅에 유입된 기독교도 샤머니즘과의 습합(習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한 종교 혼합은 진정한 의미의 정신적 정착의 결여, 다시 말해 한국인 특유의 '유랑민 근성'에 기인한다. 황순원은 샤머니즘과 유랑민 의식을 극복하고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방안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서 찾았다.

주제어 : 황순원, 움직이는 성, 유랑민근성, 문화의 만남,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충돌, 아가페

- I. 황순원의 문학세계와 기독교
- II.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만남
- III. 기독교의 샤머니즘화
- IV. 한국기독교와 유랑민 근성
- V. 진정한 기독교의 길 : 아가페의 실천

I. 황순원의 문학세계와 기독교

한 문화가 지배적인 토양 속에서 다른 문화가 이식될 때, 기존의 문화는 새로운 문화가 그 원래의 순수한 형태대로 자라나 꽃피우지 못하게 막고 오히려 기존 문화의 토양 속에 용해되도록 만든다. 이러한 문화 현상은 일찍이 독일의 역사학자 오스발트 슈팽글러가 『서구의 몰락』에서 '역사적 가정(假晶)'이란 용어으로써 설명한 바 있다. 지중해 연안에서 탄생하여 발전해나간 기독교가 다른 문명권으로 이식될 때, 기존의 종교가 이미 정착해 있는 그 지역에서 진정한 기독교를 수용하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가령 한국 사회가 외래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이고자 할 때, 진정한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황순원의 장편소설 『움직이는 성(城)』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성찰하며 작가 나름대로 이에 대답하고 있다.

황순원(1915~2000)은 기독교 신자인 부모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고, 정주의 오산 중학교 재학 시절에는 오산중학교 설립자이자 31운동 때에는 기독교 측 대표로 참여했던 남강 이승훈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이어서 기독교 학교인 평양의 숭실중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김병익(1992: 206)은 「기독교의 수용과 그 변모」라는 글에서 황순원을 기독교적 인생관과 세계관을 흡수한 사상가로 인정하면서도 "스스로를 크리스찬으로 표명하지 않은 작가"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이후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 무비판적으

로 되풀이된다. 그리하여 마치 황순원은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작품을 쓴 작가인 듯한 인상을 주어왔다. 하지만 사실 황순원은 꾸준히 교회 출석을 한 기독교인이며, 모비에도 '성도 황순원'으로 새겨져 있다.¹⁾ 말년으로 갈수록 그의 신앙은 더욱 깊어져 갔다고 한다.²⁾

황순원은 문단에서 매우 존경을 받았던 작가이기도 하다. 한승욱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황순원은 일체의 문단정치를 배제하고 오로지 창작에만 몰두한 결벽주의의 초상을 간직한 작가이다(한승욱, 1993: 127)." 서정주도 그를 일컬어 "세상에서 잡문이라고 일컫는 것을 단 한 편도 쓰지 않고 지내온 순수성(純粹性) 수호의 대표자", "문학단체나 예술단체의 장(長)이 되는 것도 늘 기피해온 유일한 사람", "어떤 문단의 감투싸움에도 절대로 참가해 본 일이 없는 장본인"으로 묘사한 적이 있다(서정주, 1995: 136). 오생근도 황순원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그는 세속적인 욕심으로 흔들린 적이 별로 없었고, 잡문이나 연재소설을 쓰지 않는 작가로 유명했으며, 오직 자신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결벽성으로 잘 알려진 작가였다(오생근, 2000: 11)." 황순원은 1934년에 첫 시집 『방가(放歌)』를 출간하고 1936년 둘째 시집 『골동품』을 출간하는 등 시에서부터 창작 세계를 출발하였다. 1937년에 최초의 단편소설인 「거리의 부사(副詞)」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단편소설을 창작하였다. 그의 시와 단편소설 속에서 기독교성이 어떻게 융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³⁾

- 1) 제자인 장현숙과 가진 대담에서 황순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장현숙: "신을 믿습니까?" 황순원: "신을 믿는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문제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과학적인 태도에서 볼 수 없는 그 당사자의 문제이지(장현숙, 2005: 483)." 『국민일보』의 한승주 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최근 들어선 기력이 약해져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주일에는 교회에 꼭 나갈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한승주, 2000)."
- 2) 말년의 삶에 대한 증언에 의하면 황순원은 성경 읽기와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장현숙, 2005: 485, 486).
- 3) 가령 황순원은 단편소설 「그」(1951)에서 겹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예수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의 인간적인 면모가 더 부각되

해방 이후에 황순원은 주로 장편 소설을 집필해왔다. 그의 최초의 장편소설은 『별과 같이 살다』(1950)로서, 이 작품에서 그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하녀로, 창녀로, 노인의 소실로 전전하다가 8·15를 맞는 곰녀라는 한 여인의 생애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겪은 수난의 역사를 그려내었다. 이어서 그는 6·25전쟁 전후의 사회적 혼란과 인간의 실존적 고뇌를 다루는 장편들을 잇달아 발표한다. 이 작품을 필두로 황순원은 모두 7편의 장편소설을 집필하였는데, 둘째 작품인 『카인의 후에』(1954)에서부터 그는 이웃 사랑 혹은 구원 등 기독교적인 주제를 다루었다.

『카인의 후에』(1954)에서 황순원은 광복 직후 북한의 공산 치하에서 토지개혁이라는 사건이 야기한 시련을 겪던 끝에 자유를 찾아 남하할 것을 결심하는 한 지식인의 삶을 다루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인간의 개인적인 악이 사회 현실과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더욱더 근원적인 악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고 인간의 사랑이 악을 포용함으로써 승리를 이룰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인간점목』(1957)에서는 6·25 전쟁이 낳은 비극적인 환경 속에서 고통 받는 고아들이 수용되어 있는 갱생원에 부임하여 비리와 폭력으로 물든 갱생원을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여 낙원으로 만들려고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 젊은이의 삶을 다루었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1960)라는 작품을 통해서도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사회 현실 속에서 가해의식과 죄의식에 시달리는 인간의 구원 문제를 다루었다.

이후의 장편들을 통해 황순원은 인간 구원의 문제에 한층 더 천착한다. 『일월(日月)』(1964)에서 백정(白丁)의 자식이라는 것이 드러나 사업이 망하게 되어 자살하는 아버지와 그 숙명 앞에서 방황하고 실존적 고통을 체험하는 아들의 가족사를 다루는데, 결국은 사회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아들(인철)을 보여줌으로써 작가는 사회적 삶을 통한 구원의 길을

고 있다. 황순원의 작품 가운데 「그」 이외에 기독교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별로 없다.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의 경우에 인철은 "신에게서 인간 구원의 방법을 찾지 않고 자기극복을 통한 인간주의적 측면에서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신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쟁점화"하지는 않는다(장현숙, 2005: 355). 황순원은 『움직이는 성』(1973)에 이르러 기독교의 신에 대해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황순원이 남긴 일곱 편의 장편소설 가운데 마지막 작품인 『신(神)들의 주사위』(1982)에서 작가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야말로 인간 구원에 이르게 하며 진정한 자유의 길에 이르게 함을 보여 주고 있다.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문학'으로도 꼽히는 장편소설이다.⁴⁾ 이 작품은 작가가 『현대문학』에 1968년 5월부터 10월까지 제1부를 발표하고, 1969년 7월부터 1971년 3월까지 제2부를, 1972년 4월부터 10월까지 제3부와 제4부를 발표하여 완결한 것으로서, 1973년에 삼중당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은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정착한 이후의 시점(70년대로 보임)을 다루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외래 종교인 기독교가 기존의 어떤 토양 속으로 유입되며, 그 토양과의 만남을 통해 기독교에는 어떠한 현상이 초래되는지, 그리고 오랜 전통을 통해 형성된 부정적인 요소가 한국의 현실 기독교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또한 황순원은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만남

한국인들의 조상이 원래부터 지녔던 종교를 이능화(李能和)는 '신교(神

4) "우리 현대 소설사에서 본격적인 기독교 작가를 꼽으라면 황순원이 제일 앞에 와야 할 것" (한승욱, 1993: 130); "우리 문학사에서 참다운 기독교 문학의 전형을 보여준 작가는 황순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그 대표적인 작품이 『움직이는 성』이었다." (한승욱, 1993: 131).

敎'라고 보았는데, 그는 고대의 신교가 오늘날 무속(巫俗, 샤머니즘)의 원형이라고 주장한다. 역사학자이자 민속학자인 이능화가 그러한 견해를 피력한 이래 우리나라의 무속 연구자들은 불교나 유교 등과 같은 외래 종교가 유입되기 이전의 고대 한국종교가 오늘날 우리가 무속이라 부르는 것의 원형이라고 일반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김인회 외, 1982: 3-4). 무속 혹은 무교(巫敎)는 후일 우리나라에 유입된 유교, 불교, 도교와 교섭 관계를 갖는 가운데 종교혼합 현상을 보이게 된다.⁵⁾

고려 시대에 불교가 국교로서 기능했지만, 고려 최고의 불교 의식이었던 팔관회(八關會)는 무속(제천 의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팔관회에서는 산신(山神), 하신(河神), 천신(天神),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사로서 무속의 큰굿을 방불케 한 행사였던 것이다(김인회 외, 1982: 4-5, 132; 최준식, 2000: 20). 한편 한국 무교의 삼대신(三大神) 가운데 하나인 제석신(帝釋神)은 본래 인도의 인드라(Indra)라는 번개신이었으나, 중국 불교에 와서 제석으로 번역되었고 불법(佛法)의 수호신으로 수용되었다. 불교에서의 제석은 아직까지 깨달음에 들지 못한, 즉 부처의 세계에 들지 못한 낮은 단계의 존재이다. 그런데 제석은 무교에서 성주(成主), 대감(大監)과 함께 최고신으로 존송되고 있는 것이다(김인회 외, 1982: 135; 김승혜·김성례, 2005: 35).

5) '무속'이라는 용어는 이능화가 1927년 발표한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라는 논문에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이 용어는 "민간의 사회 습속"이라는 의미로 "체계를 갖춘 종교로 보기보다는 민속 현상으로 간주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용어"이다. '무교'라는 용어는 신학자 유동식이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1975)라는 책에서 최초로 사용한 용어로서 "단순한 민간의 사회 습속이 아닌 하나의 종교"로서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 이후에도 김태근(1980)과 최길성(1980) 같은 민속학자들은 무속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해왔다. 샤머니즘과 무교에 대해서는 한국의 무교가 시베리아 샤머니즘과 다른 신앙 체계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한국 무교가 동북아시아 일대의 보편적 원시종교 현상인 샤머니즘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용어들에 대해서는 김승혜·김성례(2005: 51-53) 참조. 우리는 본 논문에서 이 무속, 무교, 샤머니즘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종교 체계의 함의가 강할 경우에는 무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합리성을 중시하는 유교(주자학)를 건국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조에 와서 무속은 박해를 받았다. 하지만 억압 가운데서도 무속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조선은 민간에서 행해지던 곳을 온전히 몰아낼 수는 없었다. 게다가 오래 전부터 전승되어온 무속 전통의 산천제(山川祭)가 유교풍의 제사로 변모된 채 명맥을 이어갔으며, 마을에서 민중들이 행해왔던 무속 전통의 동제(洞祭)도 유교풍을 띠긴 했으나 전통적인 무속성을 여전히 이어간 것이다(김인회 외, 1982: 137-8). 국가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지속시켜 오며 한국민의 심성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에 무교는 한국인의 '영원한 종교(최준식, 2000: 24)'로 간주될 수 있었다.

이 땅에 기독교(특히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유일신을 숭상하는 기독교는 우상(잡신)을 섬기는 무교를 대표적인 미신으로 간주하고서 이를 배척하게 되었음은 자연스런 현상이다(김승혜, 1999: 193). 반면에 무교의 입장에서는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 종교이자 철저한 유일신(唯一神) 사상을 지닌 기독교가 매우 위협적인 종교로 간주되었기에 양자 간에 긴장과 충돌은 불가피했다. 한편, 이전의 불교와 유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교의 전통 속에서 기독교를 수용한 이 땅에서 기독교 역시 무교와의 종교혼합 현상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었다.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무교와 외래종교인 기독교의 대립 및 기독교의 샤머니즘화에 대해서는 김동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의 문학 작품 속에서 다룬 바 있다. 단편 소설 「무녀도」와 이를 발전시킨 중편 『을화』를 통해 김동리는 두 종교 사이의 긴장과 충돌을 잘 드러내었다. 그러한 긴장과 충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통 사상인 샤머니즘에 대한 애착을 간직한 김동리가 두 작품 속에서 소개하는 기독교(육/영술의 기독교)는 상당히 샤머니즘화된 기독교이다. 장편 『사반의 십자가』에서도 기독교 혹은 성경에 대한 샤머니즘적인 해석이 두드러진다. 이 작품에서 김동리는 예수의 이적(異蹟)을 샤머니즘적인 현세주의의 틀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김동리가 샤머니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다루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샤머니즘을 민족적 정체성의 토대로 제시하고자 한 반면에, 황순원은 샤머니즘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간주했으며 이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았다. 김동리와는 달리 샤머니즘화한 기독교가 아닌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극복한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피력한 작품이 바로 『움직이는 성』이다.

III. 기독교의 샤머니즘화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의 주요 등장인물은 무속 연구가로서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민구, 유랑인처럼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도는 농업 기사 준태, 목사가 되었다가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마침내 구도자의 길을 걷는 성호 등 세 사람이다.

부호(富豪)인 장로의 딸과 약혼한 세례교인 민구는 한 무속인(박수)의 도움을 받아 무속을 깊이 연구하는 동안 그와 동성애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 사실이 약혼녀에게 알려지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약혼녀 부친의 회사로 들어가고자 하는 매우 현실주의적인 인물이다. 다. 반면에 준태는 삶에 대해 소극적이고 허무주의적인 태도를 지니는 인물이다. 그는 한때 기독교인이었으나 기독교를 떠난 이로서, 인간을 사랑할 줄도, 동료 인간에게 사랑 받을 줄도 모르고 오로지 에고(ego) 속에만 칩거하다가 쓸쓸히 죽어간다. 한편 이 소설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인물은 성호이다. 그는 스승(목사)의 부인을 사랑했던 기억을 원죄처럼 지닌 채 살다가 신학도가 된 뒤에 부유한 아버지의 기업체 인수도 거절하고 시내의 큰 교회 목사직 제의도 사양하며 빈민가로 가서 약자들과 함께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움직이는 성』에 등장하는 이 주요 인물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샤머니즘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속 연구가인 민구 뿐 아니라 농학도인 준태도 한국인의 심성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샤머니즘에 대해 상당히 날카로운 통찰을 지니고 있다. 개신교 목회자인 성호 역시 한국 교회 내면에 스며들어 있는 샤머니즘적인 요소에 대해 충분히 의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민구와 준태도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깊은 연관성을 나름대로 인정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작가가 샤머니즘에 대해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도록 설정한 인물은 민구이다. 그는 무속을 연구하면서 대학에서 민속학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민요수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무속으로 '외도'를 한 이후로 그는 오히려 무속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온 학자이다. 민구는 대학에서 국문과를 함께 다녔던 친구인 성호에게 무당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육당의 불함문화론이란 글을 보니까 단군이란 말은 몽고어의 당굴이란 말을 한자투 표기한 거라구 하면서, 당굴 즉 단골이라고 볼 때 단군은 다른이런 무당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는 거야. 현재두 남쪽으로 내려가면 무당을 단골이라 부르구 있거든. 단군이 단골, 즉 단군이 무당이란 게 틀리지 않는 확증 비슷한 게 있어. 삼국유사에 보면 고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구 기록돼있는데 말야, 연대루 봐서 어떻게 고주몽이 단군의 아들일 수 있겠나. 이 단군이란 말을 무당이란 말루 보면 이상할 게 없거든. 그리구 삼국유사에 보면 박혁거세의 아들 남해왕의 왕칭을 차차웅 또는 자충이라구 했는데 이 차차웅이나 자충이니 하는 말이 무당이라는 뜻이라구 돼있어. 말하자면 박수라는 거지. 그러니 세습적이던 옛날제도루 봐서 박혁거세두 무당이었던 게 틀림없을 게 아냐. 지금은 무당이 갖구 있는 능력만으루 남을 지배할 수 없게 되구, 되레 천시를 받는 경향이 있지만 본래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예언을 하구, 투시력을 갖구 있구, 질병을 고치구 했으니 그때사람들한테 얼마나 두렵구 신비스런 존재였겠나. 그런 사람이 남의 우두머리가 됐을 건 뻔한 일이지. 조선조 초기만 해두 무당을 스승이란 말루 존대해 불렀거든(황순원, 2000: 84).

한국의 토속적인 샤머니즘은 순수한 상태로 유지되어 온 것은 아니다. 외래 종교가 유입되면 한국의 샤머니즘은 그 종교를 수용하여 혼합주의적인 종교로 변모한다. 불교가 유입된 이후로 샤머니즘은 불교적인 요소를 받아들여 샤머니즘의 틀 속에 융해해 버린다. 민구는 자신이 강화도에서 수집한 그림을 보여주며 성호에 말한다.

이건 삼불제석이란 건데, 샤먼들이 쩌 높이 숭봉하는 신이야(황순원, 2000: 83).

이 그림에 대해 작중화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꼭 전면에 두 인물이 있고, 두 인물 사이로 뒤에 한 인물이 있는데, 모두 연꽃에 받쳐진 상반신이다. 그리고 똑같이 황색 고깔을 쓰고, 황색 장삼에 검은 염주를 목에다 걸고 있다. 묘한 것은 장삼의 것이 오른쪽은 빨강이요, 왼쪽은 파랑이다. 그림 위쪽에 구름이 그려져 이들이 하늘에 산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황순원, 2000: 83).

민구는 "본시는 샤먼들의 신이었던 게 나중 불교의 영향을 받아 연꽃과 염주가 붙게 됐을 거"라고 해석한다. 이 세 인물은 무속(민간신앙)에 나오는 삼신(三神) 혹은 삼신할머니가 불교의 영향을 받아 혼합된 것이다. 박제상(朴堤上 363~419?)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부도지(符都誌)』에 의하면 우리 민족의 기원은 마고로부터 시작한다(박제상, 2002: 17-22). 마고와 그녀의 두 딸인 궁희와 소희가 바로 삼신이다.



삼불제석



삼신할머니

물론 샤머니즘과 불교 사이의 교섭은 쌍방적이다. 샤머니즘이 불교적인 요소를 수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 역시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받아들여 샤머니즘화된 불교가 되기도 하였다. 샤머니즘의 강력한 정신적 혹은 영적 기반 위에서 불교가 유입이 되었지만 그 불교는 상당히 샤머니즘화된 불교로 변질되었다. 절들이 별처럼 널려져 있고, 탑들이 기러기 행렬처럼 연이어 섰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불교가 성행했던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쇠퇴한 이유에 대해 준태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그게 왜 쇠퇴했겠어요. 조선조 때의 배불 사상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 사람에게 진실루 불교를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결핍돼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세상 권력이나 실리에서 초월해야 할 불교를 우리가 그런 것들과 손을 잡게 했으니 말입니다. 결국 우리 민족은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는 눈앞의 이해관계에만 급급한 성정을 갖고 있는 거죠(황순원, 2000: 197).

불교가 샤머니즘과 교섭하는 가운데 샤머니즘화하였듯이, 그리하여 불교의

순수성에 손상을 입었듯이,⁶⁾ 이 땅에 유입된 기독교도 샤머니즘과의 습합(習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목회자인 성호는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이 순수한 혹은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 혼합종교의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자신의 목회 현장 경험을 통해 경험해 왔다. 성호가 목회하는 교회의 최장로는 자신의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최장로의 조부는 그 교회의 창설자인 장로였고, 최장로의 부친 역시 장로였다.

“우리 조부님이 귀신을 버리구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뭔지 아시우? 크흠.” (...) “처음부터 기독교 진리에 이끌리셨던 건 아니에요. 이건 조부도님께서 생전에 은근히 귀뽀하신 겁니다만, 크흠, 귀신을 섬기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게 비용이 덜들기 때문이었어요.”

“아, 네.”

“봄 가을 낱잡아 굿하구, 음력 정초와 칠월 칠석엔 빼놓지 않구 치성을 드리구, 크흠, 그뿐인가요, 무슨 일이 있을 적마다 살풀이를 한다, 푸닥거리를 한다, 그야말루 무당집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죠, 크흠. 굿을 한 번 하자면 줄잡아두 지금 돈으루 몇만원 풀어야 하구, 치성 한 번 드리는 데두 사오천원 들여야 했답니다, 크흠. 그게 예수를 믿으면서부터는 술 담배까지 끊게 됐으니 더 절약될 밖에요, 크흠(황순원, 2000: 150-151)”. ”

최장로는 교회 부근에 적지 않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시내에 큰 기업체도 소유하고 있는 예순들의 노인이다. 그 나이와 그만한 처지에 있는 이가 좀더 잘되기 위해 개명(改名)을 한 것이다. 한국 기독교의 샤머니즘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기복 신앙이다. 초월적인 천국을 바라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감내(堪耐)하기보다 현세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하고자 하는 강력한 집착을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지녀온 것이다.

6) 지금도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산신각(山神閣)이나 칠성각(七星閣) 등은 모두 불교가 민속신앙과 습합된 것이다. 1960년대에 조계종의 선사들이 산신각이나 칠성각은 불교 본래의 것이 아니라 민속적인 것이기에 없애자는 개혁 운동을 일으킨 적이 있다(김승혜, 1999: 196; 201-202).

“그런데 크흠, 목사님 어떻습니까? 개명하는 건 미신의 짓이 아니겠죠?” 최장로가 화제를 바꿨다. “이름 고치는 것 말입니다, 크흠.”

“이름을 고치다니 누구의 이름 말씀인가요?”

“제 이름입니다. 성서에두 이름을 고친 예가 많지 않아요? 크흠.”

“뭐라구 고치셨나요?”

“영흥이라구 고쳤습니다. 길 영永자에 크흠, 일어날 흥興잡니다. 어떤 작명 잘하는 노인이 지어주었는데 지금까지의 춘식이란 이름, 봄 춘春자 심을 식植자는 젊어선 괜찮지만, 크흠, 노년엔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루 고친 내 이름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꾸구, 시몬이 베드로란 이름으로 바꾼 거나 마찬가지지요, 크흠.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한 부분만 고치지 았구 아주 갈아버렸으니까요, 크흠(황순원, 2000: 191).”

한국인은 질병이나 사업 실패 같은 인생의 위기에 부닥치면 답답한 심정에서 무당이든 점쟁이든 찾아가는 습성을 지니고 있었다. 기독교인들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답답하고 급한 마음에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한다. 성호는 자신이 목회 현장에서 체험한 내용과 성찰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들려준다.

“우리나라 사람에게겐 본시부터-자네 말대루라면 단군 때부터라 해두 좋아-하여튼 잡신을 잘 받아들이는 바탕이 있는가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 중에서도 기독교와 샤머니즘-기독교 대신 불교라구 해두 마찬가지지만-이 두 사이를 항상 오가구 있어. 반 발짝 내디디면 기독교, 반 발짝 들이디디면 샤머니즘,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셈이지. 최근 내가 있는 교회 안에서의 일인데, 집사루 있는 부인의 손자애가 병이 나서 나한테 기도를 받았어. 그런데 좀 봐, 그날 밤 그 집에서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릴 했다는 말을 듣지 았았겠어. 내 기도나 푸닥거리 중 어느 쪽의 효험이건 보자는 게 그 여집사의 속셈인 거지. 알아듣겠나? 아마 이런 예가 허다할걸(황순원, 2000: 86).”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갈등 혹은 습합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명숙이다. 그녀는 성호가 시무하는 교회의 주일학교 반사(班師)인데, 시내에서 여학교를 다니며 고전무용까지 배워오던 중류 가정의 딸이었으나 부친의 사업 실패와 병사(病死) 이후로 수재민과 철거민을 위해 세워진 집단주택 마을로 흘러들어오게 된 소녀이다. 그녀는 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무용과 오르간을 가르치며 많은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했다. 그런데 명숙은 당시 병원에서 병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앓아누워 지내고 있었다. 샤머니즘의 온상이 바로 가난이라는 민구의 지적대로, 성호가 목회하던 그 가난한 집단주택 마을은 샤머니즘의 강력한 영향권 내에 있었다. 명숙 어머니는 동네여인들의 권유에 못 이겨 결국 내림굿을 하게 된다. 동네 사람들은 명숙이 무당이 되기 위해 무병(巫病) 혹은 신병(神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무당 앞으로 불러 나온 명숙은 "하나님…… 아버지……"를 약하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마침내 그녀에게 무당이 내린다. 명숙이를 무당 내리게 하는 곳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꾼 틈을 헤치고 들어선 성호를 보는 순간, 명숙은 고함을 지른다. "예수귀신 물러가라야!" 그러나 성호가 묵묵히 그녀에게 다가가자 명숙은 이상한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쓰러진다. 이후 명숙은 무당이 되지 못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하지도 못한 채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게 된다. 기독교와 샤머니즘 사이의 갈등으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녀는 정신병에 걸린 것이다. 천이두는 명숙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그녀의 의식의 상충부를 지배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지만, 그 저변을 지배하는 것은 샤머니즘이다. 그녀가 미친 것은 자기 의식의 상충부와 하부 구조 사이의 모순당착 때문이다(천이두, 2000: 134)".

IV. 한국기독교와 유랑민 근성

황순원 자신은 이 작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슴 밑바닥에 아직 자리잡고 있는 유랑민 근성"을 그렸다고 말하고 있다. '유랑민 근성'은 인간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것을 추구하며 정착성을 잃고서 뿌리 없는 삶 속에서 방랑함을 의미하며, 또한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방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사람한테 유독 신(神)이 잘 붙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민구의 질문에 대해 군대 시절부터의 친구인 준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글쎄…… 그건 정착성이 없는 데서 오는 게 아닐까. 말하자면 우리 민족이 북방에서 흘러들어올 때 지니구 있었던 유랑민근성을 버리지 못한 데서 오는 게 아닐까. 우리 민족이 반도에 자리를 잡구 나서두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착해본 일이 있어? 물론 다른 민족도 처음부터 한곳에 정착된 건 아니지만 말야. 그렇지만 어디 우리나라처럼 외세의 침략이 그치지 않은 데다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폭넓은 영구적인 자주성이 결여된 나란 없거든. 신라통일만 해두 그렇지 뭐야. 우리 힘으로 통일한 게 아니구 당나라의 힘을 빌리잖았어? 다른 면에서 본다면 당나라가 자기네 변방을 위협하는 고구려를 없애버리는 데 신라가 팔려들었다구 볼 수도 있는 거지. 어쨌건 외군이 떳떳하게 우리나라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게 신라 때부터구, 요즘 흔히 말하는 주체성의 결여도 그때부터라는 걸 상기해야 할걸. 이렇게 옛날부터 우리 생활 밑바탕은 정착성을 잃구 살아온 민족야. 나두 거기 어엿이 한몫 끼어있지만 말야(황순원, 2000: 123-124)."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며 오랫동안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게일(James Scarth Gale) 선교사는 한국의 종교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한국의 종교는 진기한 종교로서 조상숭배와 불교, 도교, 영혼숭배, 점술, 마술, 풍수, 점성술, 물신숭배의 혼성이다. 용이 활동을 하며 귀신이나 자연신이 풍부하여 '도깨비'가 수없이 많다.⁷⁾

우리에게 다양한 종교 문화가 존재한다는 데 대해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준태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종교 혼합은 진정한 의미의 '정착'의 결여, 다시 말해 '유랑민 근성'에 기인한다. 자주성과 주체성의 결여가 결국은 이 신, 저 신을 마구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 수용의 원동력은 실리적인 것을 바라는 마음이다. 실리 추구의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다보니 그 신앙은 뿌리 없는 신앙일 수밖에 없다.

성호가 많긴 적긴 간에 자기 생활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고 말하자 준태는 그 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런 사람들두 따지구보면 하나님의 진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떤 실리면만을 받아들이구 있는 게 아닐까요. 이를테면 소원 성취나 해주는 하나님, 혹은 천당에나 가게 해주는 하나님, 혹은 몇 번 죄를 지어두 회개만 하면 용서해주는 하나님으로서 말입니다(황순원, 2000: 52).”

민구도 준태의 견해에 동감을 표하며 이렇게 덧붙인다.

“교리의 참다운 뜻을 터득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무슨 실리적인 것을 바라구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많을 것같애. 마치 샤먼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듯이 말야(황순원, 2000: 52).”

성호는 그 점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한국 사회에 올바른 신앙의 정착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 준태가 실리적인 것을 바라는 신앙을 '정신적으루 뿌리박지 못한 신앙'이자 '유랑민근성을 면치 못한

7) J. S. Gale(1909: 70) 정대위(1986: 60-61)에서 재인용.

신앙으로 규정하고서 강력하게 비판할 때, 성호는 진정한 기독교신앙에 대한 희망을 지니고 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신앙은 정신적으루 뿌리박지 못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말하자면 유랑민근성을 면치 못한 신앙이라 할까요.”

“그러나 신앙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언젠가는 올바른 신앙이 뿌리박힐 겁니다(황순원, 2000: 53).”

올바른 신앙의 정착에 대한 희망을 가진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지향할 뿐 아니라 자신이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성호는 냉소주의에 머물러 있는 민구나 준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민속 연구가인 민구는 기독교와 사머니즘의 습합 현상에 지적인 관심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민구 자신이 사실상 실리적인 면을 추구하며 유랑민근성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다. 민구 자신도 세례교인이지만 그는 동성애자인 박수 변씨의 성적인 유혹에 빠져 들었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이 부호(富豪)의 딸인 약혼녀에게 알려졌을 때 심지어는 무속 연구까지 포기하고 장인 될 사람의 제약회사로 들어갈까 하고 망설이는 현실적인 인물이다. 약혼녀와 함께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른 지 얼마 안 되어 변씨와 함께 “무가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는데 대한 아무런 마음의 갈등”도 느끼지 않았으며, 무가와 춤을 마친 후에 변씨와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들곤 한 것이다(황순원, 2000: 261).

한편 준태는 민구와는 다른 형태로 유랑민근성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다. 그도 중고등학생 때 한동안 교회에 꾸준히 나갔으며 새벽예배에도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약자의 신앙밖에 못 가진 자신’을 깨닫고서는 교회를 떠났다. 그는 자신이 지녔던 ‘약자의 신앙’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한 마디루 말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지 못했으니 죽어서나 천당에 가보겠다는 신앙, 부자가 천당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 구

명으루 들어가기보다 힘들다는 비유에서 위안이나 얻으려는 신앙, 이러한 약자의 신앙밖에 못 가진 자기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입니 다. 목사의 설교두 내게 그런 걸 요구했구요, 교회를 바꿔봤지만 마 찬가지드군요(황순원, 2000: 136-137)."

준태는 현실의 한국 교회에 매우 비판적이다. 그는 예배 때 손을 내두르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기도 끝에 병 나은 사람이 즉석에서 간증하는 등 "열성이 지나쳐 광적이 되는" 예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한다(황순원, 2000: 135). 현실 교회에 실망하여 그리고 현실 교회가 제시하는 신앙을 올바로 극복하지 못한 자신에게 실망하여 교회를 떠났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에겐 '창조주'가 올바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족은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적인 신앙을 받아들일 만한 바탕을 갖지 못했다"고 파악한다(황순원, 2000: 196). 그런데 그는 비판에만 머물고 진정한 신앙의 길을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가정생활 혹은 이성간의 사랑 같은 현실 생활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 유랑한다.

민구의 '유랑민 근성'이 실리적인(물질적인) 것이라면, 준태의 '유랑민 근성'은 정신적인 것이다. 반면에 성호는 물질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유랑민 근성' 모두를 극복한 인물이다. 고교 시절에 스승(동란 때 행방불명이 된 정 목사)의 부인(홍 여사)을 사랑했던 전력이 노회에 알려졌을 때, 그는 솔직히 인정하고서 미련 없이 성직을 떠났다. 사실 그는 홍 여사의 뱃속에 잉태해 있던 태아를 지워야 했던 사건으로 인해 괴로워 하다가 학사 편입하여 신학교에 입학했던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기업체 인수도 거절했을 뿐 아니라, 서울에 장만한 집도 홍 여사의 아들에게 등기해 주었다. 그는 비록 성직을 떠났지만 빈민가로 가서 시멘트 벽돌 찍는 일과 군고구마 장수를 하며 창녀나 고아와 같은 주위의 가난한 이웃에게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성호의 위대한 점은 자신과 홍 여사와의 관계가 알려진 후에 비록 목사직을 떠났지만 기독교를 떠나 방황하지 않고 오히려 아가페적 사랑의 실천의 길을 걷은 점이다.

그는 우리 민족이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적인 신앙을 받아들일 바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준태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세월이 오래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기독교의 뿌리가 내리구 건전한 종교이념이 형성될 날이 있겠죠(황순원, 2000: 198).”

준태가 기독교에 내재한 샤머니즘적 요소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하긴 했으나 기독교에 정착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면, 성호는 샤머니즘을 극복하고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방안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찾았다. 이러한 성호의 아가페 실천은 기독교의 샤머니즘화에 대한 황순원의 대안(代案)이며, 유랑민근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도이다. 동시에 그것은 황순원의 제시하는 기독교적 삶의 전범(典範)이기도 하다. 그러한 삶을 제시함으로써 황순원은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피력한 것이다.

V. 진정한 기독교의 길 : 아가페의 실천

선교신학자 테오 순더마이어는 문화토착화(Inkulturation)와 종교혼합(Syncretismus)을 구분한다. 그는 전통 문화와의 만남 속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손상되지 않는 경우를 문화토착화요, 기독교의 정체성 혹은 복음의 핵심이 심각하게 변질되는 경우를 종교혼합이라고 규정하였다. 물론 순더마이어 자신도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임을 인정하였다. 두 영역 사이에는 교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두 개념이 "서로에게 속해 있지만 동시에 구별되어야" 함을 역설한다(Theo Sundermeier, 1993: 158-168).

순더마이어가 구분한 용어를 사용하여 말하자면, 황순원은 종교혼합에는 반대하였다. 그는 특히 기독교의 샤머니즘화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렇지만 그가 문화토착화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순수한 복음을 해치지 않는 한, 전

통문화와 기독교의 만남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이 점은 작중인물 성호(윤 목사)가 기독교 신문에 기고한 「우리나라 풍습과 기독교」라는 글과 관련한 내용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이 글을 발표한 후 성호는 노회에 호출되어 세 명의 목사로부터 '심문'을 받는다.

"그 글을 쓴 의도가 뭘이었습니까?"

(...) "때늦은 감이 없지않지만, 우리나라 풍습에 관한 기독교의 한계를 밝혀두기 싶었습니다. 말하자면 교리에 저촉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풍습에 기독교가 지나친 간섭을 말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 "제사 지내는 게 우리 기독교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상과 미신을 생계두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는 조상에 대한 추모입니다. 어떤 신에 대한 신앙행위는 아닙니다."

(...)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제사를 금해왔는데 이제와서 그걸 타파하겠다는 건 이단의 짓이 아니겠습니까?"

(...) "서양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사를 무슨 종교의식의 하나쯤 잘못 판단하구 금한 것이니까 이제라도 시정해야 할 것은 시정해야 할 줄 압니다(황순원, 2000: 219-220)."

성호가 자신의 글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치리목사들은 드디어 성호의 과거 전력(홍 여사와의 사랑)을 거론하였고, 결국 성호는 자진하여 교단에서 물러가기로 하였다.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지내는 제사가 과연 우상숭배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신학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그러나 최소한 성호의 판단으로는 제사 뿐 아니라 전통적인 관습—예를 들어 폐백 때 신부 치마폭에 대추를 던져주며 소생이 많기를 축원하는 일이나, 돌잔치 때 상위에 실타래, 책, 연필, 돈 등을 놓고서 어린애에게 잡게 하는 것—을 미신이라 단정하여 금하는 것은, 규제를 많이 만들어 놓음으로써 신도들이 쉽게 범하게 하여 마침내

는 신자들의 죄의식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성호는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 정신으로 선을 키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악과 싸울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황순원, 2000: 224). 이런 점을 통해 볼 때 최소한 성호의 의식 속에는 복음의 본질이나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명확한 관념은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현대 문학가 엔도 슈사쿠(遠藤周作, 1923-1996)는 소설 『침묵』(1966)을 통해 일본이 과연 서양의 기독교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일본에서 진정한 기독교가 가능한가, 라고 질문했던 엔도 슈사쿠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우리는 황순원에게서 발견한다. 다시 말해 황순원은 『움직이는 성』을 통해 한국에서 진정한 기독교란 과연 가능한가, 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십 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했던 『침묵』의 등장인물 페레이라 신부는 서양 선교사가 가르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본인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신이기에, 일본인이 수용한 기독교 신은 일본식으로 굴절되고 변화된 신이었다고 본다. 그는 일본인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일본인은 전통적으로 신을 "인간을 미화시키거나 확대시킨 존재,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 보았다.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초월적이며 전지전능한 존재 개념이 없었기에 일본인에게 서양의 신은 진정으로 이해될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이다(엔도 슈사쿠, 2004: 235).

이러한 페레이라의 관점은 한국 민족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만한 바탕을 갖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준태의 입장과 거의 동일하다. 페레이라와 준태의 관찰은 분명 놀라운 바가 있다. 일본과 한국의 당대 기독교가 전통 문화의 늪 속에서 뿌리부터 썩어 그 정체를 알기 힘들게 되었다는 판단은 탁월한 인식이다. 하지만 기독교가 전통 문화의 늪 속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과, 이에 불가능하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 황순원은 한국 기독교가 샤머니즘의 늪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우

리나라 사람들의 가슴 밑바닥에 아직 자리 잡고 있는 유랑민근성⁸⁾이 매우 강력한 것이긴 하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현세적인 실리만 추구하는 '유랑민근성'이 극복하기 위해 황순원이 제시한 것이 실천적인 사랑, 자기희생적인 아가페이다. 『인간접목』을 통해 625전쟁으로 오른팔을 잃고 의사의 길을 접어야 했으나 좌절하지 않고 갱생고아원의 고아들을 위해 아가페를 실천한 최종호를 보여주었듯이, 흘러가버린 과거사가 알려져 목회직을 내려놓았으나 원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빈민가의 성자로 생활한 성호를 『움직이는 성』에서 보여줌으로써 황순원은 이웃 사랑(아가페)의 실천이야말로 기독교인이 걸어야 할 길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이 걸어야 할 길임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움직이는 성』을 대표적인 한국 기독교문학으로 파악한 한승옥의 견해를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 작품의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끝 부분에 담겨 있는 창조주에 대한 관점은 복음주의 신학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기에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소설로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황순원은 『움직이는 성』의 말미에서 창조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삶이든 죽음이든 선이든 악이든 이 밖의 모두 다 창조주의 것이다. 이렇게 창조주는 자기 형상과 마음 가짐처럼 만든 인간을 통해 스스로 지니고 있는 정과 반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황순원, 2000: 347)."

창조주는 선과 악의 모든 요소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정(正)과 반(反)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견해는 신의 불완전성을 전제한 것인데, 이는 복음주의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황순원은 말년에(1993년) 제자인 장현숙과 나누었던 대담에서 "『움직이는 성』에서 드러내었던 신관(神觀)은 덜 성숙된 신앙에 기인하였다"고 고백하였다. 그리고 그는 "신은 완전한 선이다."

8) 이는 황순원이 『문학사상』과 가진 대담에서 사용한 표현이다(황순원, 1972).

라고 수정해서 말하였다고 한다(장현숙, 2005: 393). 자신의 이전 관점의 잘못을 시인하고 수정한 점은 분명 용기 있는 행동이다. 다만 『움직이는 성』 이후에 신에 대한 수정된 견해를 반영한 훌륭한 소설을 황순원이 남기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움직이는 성』을 능가하는 훌륭한 한국기독교 소설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병익 (1992), 「기독교의 수용과 그 변모」, 김우규 편, 『기독교와 문화』, 종로서적.
- 김승혜 (1999), 『동아시아 종교 전통과 그리스도교의 만남』, 영성생활.
- 김승혜·김성례 (2005), 『그리스도교와 무교』, 바오로딸.
- 김인회 외(1982), 『한국무속의 종합적 고찰』,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 김태곤 (1980), 『한국 무속 연구』, 집문당.
- 박제상 (2002), 『부도지(符都誌)』, 김은수 역, 한문화.
- 서정주 외 (1995), 「황순원 특집:〈거리의 부사〉에서 〈신들의 주사위〉까지 황순원이 있는 풍경」, 『작가세계』, 24호.
- 엔도 슈사쿠(遠藤周作) (2004), 『침묵』, 흥성사.
- 오생근, 「전반적 검토」, 오생근 엮음(2000), 『황순원 연구』, 문학과 지성사.
- 장현숙 (2005), 『황순원 문학연구』, 푸른사상.
- 정대위 (1986), 『그리스도교와 동양인의 세계』, 한국신학연구소.
- 천이두, 「종합에의 의지」, 오생근 엮음(2000), 『황순원 연구』, 문학과 지성사.
- 최길성 (1980), 『한국 무속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 최준식 (2000),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사계절.
- 한승옥, 「기독교와 소설문학」, 소재영 외(1993), 『기독교와 한국문학』, 대한기독교서회.
- 한승주 (2000), "문단 '큰나무' 황순원씨 85세 일기 영면" 『국민일보』 2000년 9

월 14일

황순원 (1972), 「문학사상과의 대담」, 『문학사상』 11월호.

_____ (1989), 『신들의 주사위』, 문학과 지성사.

_____ (1990), 『별과 같이 살다 / 카인의 후예』, 문학과 지성사.

_____ (1990), 『일월』, 문학과 지성사.

_____ (1999), 『인간점목 / 나무들 비탈에 서다』, 문학과 지성사.

_____ (2000), 『움직이는 성』, 문학과 지성사.

Gale, J. S. (1909), *Korea in Transition*.

Spengler, Oswald (1987), *Le Déclin de l'Occident II*, Gallimard.

Theo Sundermeier(1993), 「토착화와 혼합주의:관계 규정의 문제」, 『신학사상』
제82집, 1993년 9월

Abstract

The Encounter of Two Cultures: A Conflict between Christianity and Shamanism in Hwang Sun-Won's *The Moving Castle*

Tae Hyeon Song(Baekseok University)

Is it impossible for Korean society to settle down the authentic Christianity? Hwang Sun-Won, the writer of *The Moving Castle*, reflects on this question and answers in his own way. Just as Buddhism was intermixed with shamanism, Korean Christianity could not escape the intermixture with shamanism. That syncretism results from a Korean nomad nature, a lack of real spiritual settlement. Hwang Sun-Won discovered, in the practice of neighborly love(*agape*), the device to overcome shamanism as well as nomad nature, and to lead an authentic Christian life.

Key words : Hwang Sun-Won, *The Moving Castle*, nomad nature, encounter of cultures, collision between Christianity and shamanism, syncretism, *agape*

